

함께 웃으며 사는 행복한 때가정

한 여성의 병치료를 위해 바쳐온 10년

사람들도 두가 뜻과 정을 나누며 서로 돕고 이르는 공화국에서 또 하나의 감동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집단지행연립기업소 글공판산채공공이었던 박태선영웅의 아내 김정순녀성이 수십년만에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고 있다는 소식이이다.
김정순녀성이 다리를 절기 시작할때는 세살때 다리를 다친 후부러었다고 한다.
그의 치료를 담당한 해당보건기관의 의료인들은 김정순녀성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열정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며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려왔다.
이러한 때 평양의학대학립산재의학부 교리의학강좌

의 장정학교원이 김정순녀성에 대한 치료를 맡아나설것을 결심하였다.
지난 시기 한 광물성고려약물의 작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수많은 환자들을 일으켜세운 경험있는 의료인인 장정학교원은 김정순녀성의 병상태로 보아 쉽게 성과를 기대할수 없으며 더우기 한두해 지성을 바쳐 끝낼 일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높이 내세워주신 영웅광부의 안해를 기어이 일으켜세워 그에게 기쁨을 드리려는 일념을 안고 그는 스스로 김정순녀성의 당당의사가 되었다.

년로한 몸매에 낮에는 치료연구를 하고 밤에는 침상결에서 수법치로도 해주면서 어서빨리 자리를 털고일어나 남편이 있던 정든 일터를 지켜가야 하지 않겠는가고 다정히 이르기요 하는 장정학교원의 진정에 김정순녀성은 자주 눈물을 적시곤 하였다.
영웅광부의 안해가 입원치료를 받고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인들과 입원환자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앞을 다투어 찾아와 지성을 다하였다.
김정순녀성이 퇴원한 후에 도 장정학교원은 그가 마음껏 대지를 구르며 걸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세월 해마다 걸걸을 찾아갔다.

순녀성의 병상태가 어떤가. 차도가 있는가고 묻곤 하였습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는 남편의 얼굴색을 보고 다 알수 있었습니다.
김정순녀성에 대한 약물반응이 좋으면 먼길을 다녀온 피로도 잊은듯 밝게 웃으며 그리도 기뻐했고 치료에서 눈에 띄이는 변화가 없으면 아무래도 정성이 부족한것같다며 려장을 풀새없이 약절구 앞에 마주앉곤 했다는 장정학교원이었다.
이런 진정을 끝내 결실을 안아왔다. 장정학교원이 걸걸을 걷기 시작하여 몇해만에 김정순녀성이 지팡이가 없이도 먼거리를 오갈수 있게 된것이었다.
더이대지를 활보하기 시작할 김정순녀성은 소원대로 박태선영웅소대에서 일하게 되었다.
김정순녀성의 생활은 나날이 새로와졌다. 지난 시기 부역일조차 제손으로 하지 못하던 그가 광부가족들과 함께 집집순도 키우고 장갑도 만들어 소대원들에게 안겨주곤 하였다.
그렇수록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고싶었던 마음속소원을



초봄이면 그의 병치료를 쓸 약재를 채취하기 위해 먼길을 걸기도 했고 밤을 새워가며 약을 만들곤 하였다.
그렇게 뜬터에서 만든 약을 안고 10년세월 걸걸을 걷는 그의 수고를 어찌 다 해야 할수 있랴. 그 나날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추억하며 장정학교원의 안해는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에는 겁덕에 갔던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김정

이론 기쁨과 행복에 휩싸였다.
오래 세월 자기를 위해 지성을 다한 장정학교원과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인들이 더없이 고마왔고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한몸에 안아 보살펴 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의 세계가 눈물겹게 되새겨져 그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지난 6월 열번째로 걸걸을 떠나며 장정학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걸걸을 앞으로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경에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아시는 영웅가정 그리고 그이께서 아기고 내세워주시는 광부들을 위해 한생 끝까지 의료인근의 본분을 다해갈 결심입니다.》
지금 겁덕의 박태선영웅의 안해가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고있다는 사실에 접하고 누구나 진심으로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오직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있다.
진정 그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머니로 높이 모신 이 땅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기적 인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여성천사와 협오가 빛어낸 사회적참사
지난 9월중순 남조선 서울의 어느 한 지하철도역 위생실안은 피가 량자했다. 이곳 지하철도에서 일하던 한 여성종업원이 흥기를 휘두르는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것이다.
피해녀성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범죄자는 오래전부터 그 녀성에게 친근거리며 못된짓을 일삼아왔다고 한다. 범죄자는 그 녀성에게 만나자면서 수백차례 넘게 전화와 동보문을 보내다 못해 나중에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피해녀성의 집주소와 근무시간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그 녀성을 지하철도 위생실안에서 기다리다가 폭행을 가하여 살해했던것이다.
문제는 남조선에서 녀성들에 대한 이와 같은 살인행위가 우연히 일어난것이 아니라라는데 있다.
언론론에서 《이번 살인사건에는 사회적으로 만연하는 녀성협오가 내재되어있다. (너만 고소를 안했으면 내가 피해를 안보겠는데.)》라는 태도가 가해자에게 내재되어있다. 《반복되는 녀성에 대한 친근거리기범칙, 남녀간의 갈등에 의한 폭력은 (세월) 호참사와 같은 사회적참사이다.》라고 개탄하고있듯이 이와 같은 사건은 녀성천사, 녀성학(협)은 (녀성협오정당)》이라고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녀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로 하여 비극적참사가 끊임없이 산생되는 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보지, 녀성들의 생지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제와 출판보도물들이 인민을 세대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부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널리 소개전파하며 격찬하고있다.
민중공화국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정책들은 한층 더 발전되는 전방적이면서도 완전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는 정책들이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종일관하게 실시되고있다. 수십년간 지속되는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조선사회주의가 필불불배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면서 브라질제사상연구센터 위원장은 《놀라운것은 인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부하는 조선의 현실이다. 곳곳에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현대적인 초고속철도에서 운행되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다.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근로인대중이 사회의 주인, 참다운 문명의 향유자로 되고있는 조선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던 이상향이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 《렘취취》도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조선은 인민적시책이 진한 전형적인 인민의 나라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세계가 평가해온 강국들은 인구수나 영토의 크기, 자원이나 재부, 지정학적우위의 유리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이며 그 어떤 대국도 지릴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인민의 나라이다.》고 썼다.
이탈랜드조선전선협회 위원장은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이어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걷고계신다. 세계적인 락후와 빈공만이 남아있던 조선이 70여년이라는 력사적기간에 오늘과 같이 변모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위대한수령들의 명도덕에 조선은 더 밝은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고 격찬하였다.
본사기자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장난이 세찬 아이들을 위해 채택해주신 결정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온 공화국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 배풀어진 고마운 인민적시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새겨져있다.
주체61(1972)년 5월 어느날에 있는 이야기도 이런 가슴뜨거운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고있다.
승용차를 타시고 평양시교외에 있는 파원을 지나가고계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옆에 앉아있는 일군에게 차창밖을 가리키시었다.
그 일군은 웬 일인가 하여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사과나무아래에서 사내아이 셋이 승용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옷이며 얼굴이 온통 흙투성이였다.
주체61(1972)년 5월 어느날에 있는 이야기도 이런 가슴뜨거운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고있다.
승용차를 타시고 평양시교외에 있는 파원을 지나가고계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옆에 앉아있는 일군에게 차창밖을 가리키시었다.
그 일군은 웬 일인가 하여

몽땅 떨어졌다고 하시며 안색을 흐리시었다.
순간 일군은 어느 사이에 아이들의 옷에 단추가 없는것까지 살펴보신 그의 세심한 관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군은 그제서야 사과나무아래에서 놀던 세 아이들의 옷이다 해쳐져있었던것이 생각났다.
승용차는 파원을 벗어나 큰길을 달리고있었다.
떨어져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이들

의 옷에 단추가 견디지 못하는것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아마 어른들이 옷을 한벌 입을 때 아이들은 두벌세벌 가지고도 안될것이라고, 그러나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고, 한창 나이의 아이들을 집안에 불러들일수는 없다고 생각깊은 어조로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겨들으며 일군은 아이들의 단추가 떨어졌을 보시고도 그렇게 여러가지로 깊이 심려하시지는 그의 웅심깊은 사랑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젊음이 넘쳐나는 곳

우리에게 리용관경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즐겨 리용하는 이 온탕원이 어떻게 마련된것인지 다는 모를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룡강온천이 더욱 유명해진것은 이곳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발자취가 뜨겁게 आरो새겨진 때부터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룡강온탕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심으신 감나무만 해도 80여그루나 된다고 한다. 근 20년전 4월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가 오래고 우리 나라의 온천, 약수들 가운데서 광물질이 매우 풍부한 이곳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휴식장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몸소 《룡강온탕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었다.
언제인가 룡강온천이 뜻밖

에 용출구를 잃어버린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아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조국의 재부를 다시 찾을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룡강온탕원에 대중온탕원을 새로 꾸리어 인민들 누구나 온천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었다는것이였다.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룡강온탕원에서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대안중기제련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남포시의 여러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는 로력혁신자들과 전쟁로병들에 대한 초청봉사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지난 기간 여기 룡강온탕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
한줄기 온천과 약수도 그저 흘러가지 않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이바지하는 나라, 온천이 있고 약수터가 있는 곳마다에 훌륭한 룡양소, 휴양소들이 일떠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자랑스러운 현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라면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는 절제사상과 인민의 다정한 사랑과 은정이 있어 이런 훌륭한 곳에서 평범한 근로자를 받는 현실이 펼쳐질수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부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의 찬가 이런가 한번 오면 다시 오고싶고 다시 오면 가고싶지 않은 룡강온탕원에서는 사람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본사기자 김철



얼마전 룡강온탕원을 찾은

본사기자 김철

언어를 통해 본 북과 남
참으로 공화국이야말로 민족의 열이 살아숨쉬는 단군민족의 진정한 조국이라는 확신이 눈물겹도록 가슴에 파고들었다.
공화국에서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의 우수성이 날로 더 높고 발달되고 빛나고있지만 남조선에서는 력대 위정자들의 반민족적행위로 말미암아 우수한 우리 말과 글이 사라져가고있다.
우선 교육기관에서 우